

[ 기획 ]

중도·청산도·유치·장평

슬로시티로의 초대

거친 파도와 호흡하며 이어온 생명력

7 완도 청산도 해녀들

봄 별 가득한 청산도 푸른 바다에 해녀들의 물결이 한창이다. 어선을 타고 청산도 인근 바다로 나온 해녀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하나 둘씩 바다에 몸을 던졌다. '뚱뚱' 소리와 함께 바닷속 찬 기운은 이내 해녀들의 잠수복을 꿰뚫고 뼈 속까지 파고든다. 바다 위로는 따뜻한 봄 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싱그러움 봄이 찾아왔지만, 수심 4~5m의 깊은 물속은 아직 찬 기운이 가득하다.

해녀가 자막질해 들어간 뒤 물 위에는 하얗고 동그란 모양의 스티로폼이 주된 없이 둥둥 떠다닌다. 바다에 들어간 주인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두렁박'이다.

'두렁박'은 해녀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해녀를 삼킨 바다는 잠시 고요한 정적만을 남긴다. 3~4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휘~, 휘~' 하는 휘파람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렸다. 물질을 마치고 물 밖으로 올라와 가볍게 내쉬는 해녀들의 '숨소리'였다. 해녀들의 가쁜 숨소리는 바다와 어울려 묘한 생명력을 뿜어낸다. 몇 번이고 숨을 들이킨 뒤 다시 물속으로 자막질해 들어간다. 대단한 폐가 있음에 틀림없다. 깊은 물속을 헤엄쳐며 잠수를 몇 차례 반복하더니 그녀들의 망사리(망태기)에는 싱싱한 자연산 전복과 소라, 해삼 등이 가득했다.

물질 배우는 사람 없어...22명만 남아 하루 4~5시간 1년 200일 이상 잠수

완도군 청산도에는 아직도 22명의 해녀가 청정해역으로 유명한 청산도의 바닷속을 누비고 있다. 모두가 제주도 해녀 출신이다. 이들은 젊었을 때 청산도로 해녀 일을 왔다가 청산도의 멋진 풍광들을 만나 결혼을 하고 청산도에 정착했다.

그래서인지 물질 때면 유독 제주도 말이 많아진다. "하형, 무시정 바점 수까? (형님, 무엇이 좀 보입니까?), "잡았수까? (뭐 좀 잡았어)" "어따(없다)" 서로 물속의 정보를 교환하는 말들이다.

윤희광(54)씨는 청산도 해녀 중 가장 막내다. 윤씨보다 나이 어린 해녀가 없고, 물질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윤씨가 사실상 청산도 마지막 해녀다.

여덟살때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수영을 배우고, 물질을 배웠던 윤씨도 30년 동안 청산도 바다를 일터 삼아 살아왔다.

윤씨는 "70~80년대만 해도 청산도에만 300여 명의 해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2명밖에 남아있지 않다"면서 "힘들 물질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물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해녀도 이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안타까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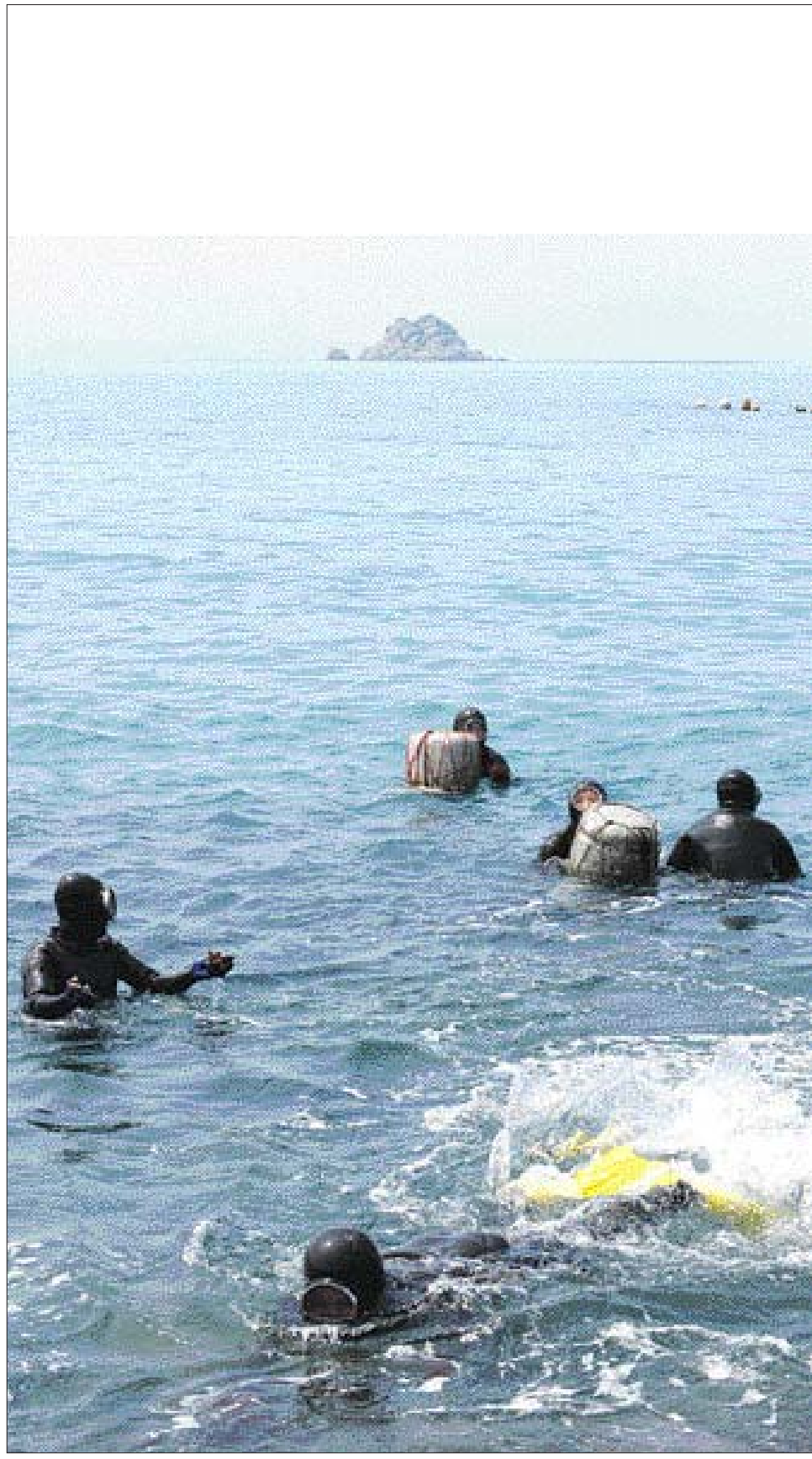
윤씨 등 청산도 해녀는 1년에 200일 정도 하루에 4~5시간씩 물질을 한다. 청산도가 국내 자연산 전복 최대 생산지인 만큼 이들이 바닷속에서 잡는 해산물은 주로 4~5년 된 전복이다.

하지만, 바다 속도 예전같지 않다. 자원이 고갈되는 등 많이 황폐화됐기 때문이다. 박순심(55)씨는 "바다 속 해산물 등이 많이 없어졌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가뭄이 이어지면서 바다가 더더욱 황폐화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수익도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래도 이들에게 바다가 희망이다.

박씨는 "30~40년 물질을 하다 보니 모두가 만성 관절염과 두통, 근육통 등을 앓고 있지만, 아직도 물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라며 "바다가 일터인 만큼 즐거운 마음을 갖고 앞으로는 20년은 더 물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산도 해녀들이 가볍게 내쉬는 숨소리는 청산도 푸른 바다에 갖고 있는 또 다른 생명력이 아닌가 싶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완도군 청산도 해녀들이 청산항 인근 바닷가에서 전복 등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잠수를 준비 중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슬로시티(Slow City)란

고유한 자연환경과 생활방식, 전통음식을 보존하고 이를 토대로 '삶의 질'을 높여가는 마을. 한국에선 신안군 중도와 완도군 청산도, 장흥군 유치·장평, 담양군의 창평이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개 국가에서 101개 도시가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여행노트

청산도를 다녀와서

"우리는 느리게 걸자, 걸자, 걸자.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아 사뿐히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보고 지나치겠네. 우리는 느리게 걸자, 걸자, 걸자."

주말 아침, 완도 향만터미널로 향하는 차 안. 요즘 다른 음악 코드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장기하가 읊조리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린다. 급할 것 없다. 하얀 꽃잎들 깔아 놓은 나주의 배꽃들, 눈두렁 발 두렁 사이사이 작은 길들, 초록들관을 마주하다 보니 어느새 완도다. 향만터미널은 '떠나려는 이들로 북적거린다. 배를 이 지매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느리게 흘러가는 삶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열망은 봄꽃향보다 진하다. 그들과 뒤섞여 탄 배. 그때부터 시계 바늘은 천천히 흘러간다.

승용차는 이미 완도에 '버리고' 왔다. 느리게 구석구석 청산도를 탐고 가자겠다는 생각에서다. 청산항에 도착하니 걷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슬로시티' 청산의 슬로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다.

어떤 이들은 이 마른 날에도 넉넉한 물을 제공해주는 청산의 산들을 밟으러 떠난다. 봄별 봄바람 맞으며 맑은 능선을 걷는 것은 내륙에서 산을 오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재미가 있다. 당리로 간다. 올라가는 길목, 동그란 해안 따라 늘어선 해송, 마을이 천천히 눈에 차오른다. 그만큼의 걸음 속도로 들어선 당리 마을, 온통 노란 유채가 들따라 인파에 소복하다. 이곳저곳에서 노란 봄 밭따라 온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한가득.

밭길을 밟는 건 노란 유채밭이 아니다. 차곡 차곡 쌓아올린 돌담길, 그리고 그 돌담 안 텃밭에서 농사 손길을 놀리는 할머니의 굽은 허리가 눈

길을 잡아준다. 시끄러운 소리도, 우물 솟아 사이를 가리는 건물도 없이, 사람과 자연이 평화롭게 뒤섞인 청산도 봄날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텃밭이 사람들도 두고 온 도시의 속도를 잃고 시나브로 청산에 스며든다.

청산에서 한평생 살고 있다는 위운심(79) 할머니는 속을 한바구니 캐 집으로 향하다 잠시 돌담 길에 걸터앉아 숨을 고른다.

"서울 아들네 집에서 며칠 살았는데 갑갑해서 못 있겠어 내려왔어. 여가공기도 좋고 사람 살기에 딱 좋아."

당리 고갈고갈 곁으며 놀다 보니 해가 저문다. 부분 자갈선으로 사라지는 해를 바라보는 것도 오랜 만이다. 마음까지 발갈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일몰에 한동안 넋을 잃고 만다.

셋노란 유채꽃

휘황찬 일몰에 넋 잃고

반짝이는 별 아래

흙냄새 취해 걷는 밤길

자리마음, 청산 걸기의 유혹은 밤에도 이어진다. 점점 밝혀 반짝이는 별밤, 휘영청 떠오른 달을 본다. 코끝으로 시골의 흙냄새가 달려든다. 그 밤 놓치고 싶지 않은 해안가 사람들의 노라는 그칠 줄 모른다.

청산이 선물한 생크린 낮과 밤의 향연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인심 좋은 민박집 이주머니는 행여 배 시간을 놓칠까봐 선착장까지 태워다준다. 탈탈거리는 뒷자리에서 청산의 자연을, 사람들의 삶의 속도를 마음에 담는다. 슬로시티 청산도의 1박2일은 천천히 오래오래 진한 감동일 것 같다. 그리고 조바심 나는 삶에 지칠 때 청산의 봄날을 위한 삼을 데다.

/글·사진=윤영호(프리랜서)



청산도를 가득 채운 노란 유채꽃. 전국에서 노란 봄을 맞으러 온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주)국민법률경제** \*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타운5층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경매**

**0621351-8240 · 010-7203-1100**  
공, 경매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행숙

구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안구	해운동	102	9천2천	3천5백	
	해운동	78	4천8백	3천5백	
	해운동	78	6천	5천5백	
	해운동	112	1억1천	7천7백	
남구	해운동	82	4천8백	3천5백	
	해운동	112	1억2천5백	9천4백	
	해운동	78	4천8백	4천8백	
	해운동	158	1억2천5백	8천7백	
북구	해운동	105	1억2천5백	9천1백	
	해운동	122	2천4백	1천8백	
	해운동	106	1억1천	8천4백	
	해운동	102	1억2천	8천4백	
서구	해운동	128	8천5백	1천5백	
	해운동	105	7천8백	6천3백	
	해운동	78	5천5백	3천8백	
	해운동	184	2억2천	2억1천	
동구	해운동	78	4천7백	4천7백	
	해운동	88	6천	4천2백	
	해운동	261	1억2천5백	1천8백	
	해운동	106	1억2천5백	9천1백	
남부구	해운동	78	7천8백	6천	
	해운동	78	7천8백	5천9백	
	해운동	128	1억2천	1억2천	
	해운동	105	5천5백	5천5백	
서부구	해운동	112	1억2천5백	1천2백	
	해운동	125	1억2천5백	1억2천5백	
	해운동	112	1억2천5백	8천7백	
	해운동	82	9천5백	8천7백	
동부구	해운동	138	1억2천5백	8천4백	
	해운동	105	1억1천	7천	
	해운동	88	6천5백	5천8백	
	해운동	161	1억1천	1억1천	
남동구	해운동	112	1억2천5백	9천4백	
	해운동	138	1억2천5백	8천4백	
	해운동	211	4천8백	2억2천5백	
	해운동	109	1억2천	1억2천	
서동구	해운동	105	1억1천	7천	
	해운동	88	6천5백	6천3백	
	해운동	158	2천	1억4천	
	해운동	112	1억2천5백	3천3백	

• 상기물건 외 다수확보! 물건 모두 친절하게 상담 하여 드리겠습니다.